‘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무주서 열린다

최북미술관서 5월 21일까지 ‘순수한 움직임’ 특별기획전시회 개최

국내 최고의 추상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무주에서 선보이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최북미술관에서 ‘순수한 움직임’ 특별기획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미술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가치를 제고하는 특별기획전이어서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순수한 움직임’은 20세기 한국현대미술 회화로부터 1920-2000년대의 추상회화를 거쳐 동시대 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추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표작가 8명의 주요 작품 17점을 소개한다. 그 중 이건용작가의 대표작 3점과 작가를 재조명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함께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다.

‘2023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은 공공재인 도립미술관 소장품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주군민과 최북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전북도내 12개 시·군이 전시를 공동 기획하고 주최하는 형태로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이건용작가의 작품을 재해석한 유아예술융합(미술+무용)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선옥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특별기획전시회를 통해 전북을 대표하는 추상미술작가들의 철학과 예술실험정신을 작품을 통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단순하지만 때로는 강렬한 색채의 움직임을 메시지로 담았으며 군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좋은 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 전시작품은 △이건용 ‘신체 드로잉’ 시리즈 △김영주 ‘검은태양’ 시리즈 △문복철 ‘삶의 춤’ △하수경 ‘사람들’ 시리즈, ‘대좌’ △하반영 ‘놀이2, 탈’ △하상용 ‘새’ 시리즈 △추광신 ‘금붕어, 황진지’이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는 최북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수한 움직임’ 특별기획전시회 포스터

진구·공승연,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 선정

2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개최

진구

공승연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진구와 공승연을 선정해 지난 14일 발표했다.

두 배우는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합을 맞춘다.

배우 진구는 2003년 드라마 ‘올인’을 통해 아역배우로 데뷔한 후 드라마 ‘태양의 후예’, ‘형사록’과 영화 ‘명량’, ‘원라인’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매력 있고 단단한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배우 공승연은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불가살’과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애타게 찾던 그대’ 등에 출연하며 섬세하면서도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 배우는 ‘혼자 사는 사람들’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서 배우상을 수상하고, 23회 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이 깊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오후 6시 30분에 레드카펫 게스트 입장 후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공연, 우범기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의 환영사,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소개, 각 경쟁 섹션별 심사위원 소개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은 장 피에르 다르덴, 뤽 다르덴 감독의 ‘토리와 로키타’ 상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벨기에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한 ‘토리와 로키타’는 소외된 이주민 소년·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세계적 거장 다르덴 형제의 최초 내한이 이번 영화제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많은 이의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진안문화원, 전북도립미술관 기획 전시

‘생의 조건에서 생의 감각으로’ 주제 5월 31일까지 진행

진안문화원은 1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진안문화의 집에서 2023년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생의 조건에서 생의 감각으로’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를 연다.

전북도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도립미술관과 진안문화원의 협업으로 공동 기획되었다.

생의 조건에서 생의 감각으로는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조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민중미술’을 조명한다. 1980년 한국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개된 민중미술운동은 수동적 대중이 아닌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민중’을 호명하여 우리네 현실을 이야기한다. 1980년대 인간적 삶과 존엄,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증언하는 작품들과 1990년대 이후 삶과 예술의 일치를 통해 생의 감각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통해 현실 속 소재와 주변화되어 가던 농민, 농촌의 생활상을 다루며 생의 조건에서 생의 감각으로 향하는 질문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획전시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식창의센터, 한식 인문학 특강 성료

한식창의센터는 지난 5~12일까지 5일간 진행된 한식 인문학 특강에 6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사전 접수자 모집이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특강은 한식 관련 도서 발간, 방송 출연 등 인지도와 대중성이 높은 명사 5인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을 준비한 센터 관계자는 “특강 종료 후에도 추가 강의 개설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유익한 음식문화 강좌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주의 음식도 세계의 변화 속에 발빠르게 대응할 때”라며 “전주음식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식창의센터는 전주 음식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참여형 모임 ‘맛손클럽 3기’의 참여자를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식창의센터 한식문화팀(063-281-1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악체험인형극 ‘팥죽할멈과 호랑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으로 국악체험인형극 ‘팥죽할멈과 호랑이’를 마련, 19~22일까지 명인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전당에 따르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된 정많은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의 도움으로 호랑이를 물리친다는 내용을 재치와 해학으로 풀어낸 국악체험인형극 ‘팥죽할멈과 호랑이’는 아무리 보잘 것 없고 약한 존재라도 서로 지혜와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민화에서나 본 듯한 익살스럽게 생긴 호랑이를 비롯해 할머니를 돕는 알밤, 쇠똥, 절구, 멍석, 지게 같은 물건들을 의인화해, 말을 하고 움직임으로써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데굴데굴, 털석털석과 같은 의태어가 운율에 맞춰 대사로 반복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일깨운다. 이에 아이들은 의인화된 물건들의 재미있는 동작 등을 따라하며 어느새 약한 자의 편에서 응원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을 보며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특히 공연을 통해 우리의 전통가락과 국악을 친근하게 접하면서 극 중 구전가요를 자연스레 함께 부르는 등, 단순히 보는 공연이 아닌 배우와 함께 무대를 이끌어 가는 체험형 무대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연극 ‘별이네 헤어살롱’ 28일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별이가 들려주는 엄마와 할머니들의 이야기!! 연극 ‘별이네 헤어살롱’을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공연한다.

연극 ‘별이네 헤어살롱’은 가족을 테마로 한 코믹 연극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엄마와 타지에서 평범한 회사생활을 하는 딸 별이가 바쁜 업무를 제쳐두고 고향 집으로 돌아온 후 수상한 행동을 보이며,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다. 엄마의 미용실을 찾아오는 할머니들로 인해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는 작품이다.

각 캐릭터별 톡톡 튀는 매력과 배우들 간의 앙상블을 보는 재미가 상당할 것이다.

또한 딸의 시선을 통해 엄마와 주변 인물들을 바라보기에 젊은 관객들에게는 나의 이야기이고, 노년층 관객들에게는 추억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관람권 예매는 4월 18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